

이재용회장 취임후 첫 인사... 비오너 출신 첫 여성 CEO 나올까

삼성전자 7일 사장단·13일 임원인사 전망... 부사장급 중심 중폭 단행
경계현 사장, 부회장 후보 1순위... 이영희 부사장, 사장 임명 가능성 ↑
이부진 사장, 승진도 관심... 60세 료 적용·M2세대 임원 대거 발탁 전망

삼성이 오는 7일에 사장단 인사를 발표하고 13일 임원인사가 단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승진 후 처음으로 단행하는 정기인사인 만큼 이번 임원 승진 대상자와 규모 등에 촉각이 모아진다.
이번 삼성 임원인사 주요 관련 포인트로는 비오너 출신 여성 최고경영자(CEO) 최종 탄생 여부와 생활가전사업부 수장 인사, 경계현 삼성전자인사(반도체부문장 사장)와 이부진 호텐텔사 사장의 부회장 승진 여부 등이 꼽힌다.
삼성 사장단 인사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발표된 SK, 현대차, LG 등 주요 그룹 임원 인사 키워드는 안정과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삼성도 비슷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임명된 한종희 삼성전자인사(DI(디바이스경영)부문장 부회장)와 경계현

사장 투 품 체제가 안정 기조 속에서 1년 더 유지될 가능성이 무거워 보이고 있다.
삼성의 핵심인 반도체 사업을 이끌고 있는 경계현 사장의 부회장 승진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사장은 삼성 내부에서 소용왕으로 불릴 정도로 내부 직원들 평가도 좋아서 부회장 승진 후보 1순위로 꼽히고 있다. 임기는 2025년 3월까지로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난 10월 인사상의 이유로 돌연 사임한 이재용 전 사장(생활가전사업부장)의 후임도 관심사다. 공석인 생활가전사업부는 현재 DX사업부를 이끌고 있는 한 부회장이 영상디스플레이(VD)사업부와 함께 맡고 있다. 업계는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들의 내부 승진을 유력하게 보고 있다. 한 부회장이 겸직하면서 최홍운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VD) 개발팀장 부사장 등 내부 인사가 맡을 가



능성이 점쳐진다. 과거 생활가전 개발팀장 출신이 수장이 된 전례를 보면 이기수 생활가전 글로벌 CS팀장과 이훈연 생활가전 선행개발팀장, 이무형 생활가전 개발팀장 등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외부 인재 수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사업부장들도 자리를 지킬 것으로 보인다. DS 부문 3인방인 이정배 메모리사업부장 사장, 최시영 파운드리사업부장 사장, 박용민 시스템LS사업부장 사장 등을 비롯해 노태문 MX(모바일경영)사업부장 사장을 유력 후보로 꼽는다.
사장단 대부분 유임되지만 부사장급을 중심

으로 중폭 인사가 대거 단행될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30~40대 젊은 인재들을 전진 배치해 미래 준비에 속도를 낼 것이라 분석된다. 사창 승진 후보로 김원경 글로벌대외협력팀장과 김홍경 DS 부문 경영지원실장, 이영희 글로벌마케팅팀장, 김봉우 삼성SDI부사장, 김명주 삼성SDS 부사장 등이 거론된다. 김원경 부사장은 외교관 출신으로 2012년 삼성전자에 합류해 글로벌마케팅, 대외협력 업무 등을 맡고 있다. 김홍경 부사장은 미래전략실 전략1팀 담당 임원과 삼성SDI 경영지원팀장을 거쳤다.
특히 이영희 부사장은 삼성 내 비오너 출신 첫

여성 사장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은 삼성전자 두 번째 여성 부사장으로 임명돼 10번째 부사장직을 유지 중이다. 갤럭시 시리즈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삼성에서 여성 사장은 이 회장 동생인 이부진 사장이 유일하다. 이 사장은 2010년 호텐텔사 사장으로 승진한 뒤 현재까지 경영 전반에서 활동 중이다. 이번 이 회장 취임으로 이 사장의 부회장 승진 가능성도 제기된다.
능력을 인정받은 젊은 리더가 대규모로 부사장급으로 승진하는 인사도 예상된다. 지난해 부사장급 이하에서 고강도 인적쇄신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도 젊은 MZ 임원들이 대거 발탁될 전망이다.
삼성에 60세 이상 임원은 2선으로 물러난다는 60세 료가 있다. 작년 12월 김기남·김현식·고동진 등 대표이사 3명이 모두 교체된 것도 60세 료가 적용됐던 분석도 있다. 이에 따라 내년 만 60세 이상 부사장급 인사 30명가량이 대부분 교체될 것이라 예측도 나온다.
최희정 기자 chojh@sportbiz.co.kr

3분기 산업대출 1년새 239조 경중... 빛 늘어가는 기업들

한은, 예금취급기관 자료
환율 상승·수출 부진 등 여파
대출금 잔액 1769조 7000억
2분기비 증가폭은 다소 줄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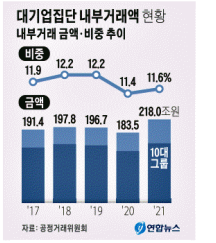
따르면 3분기 말 전 산업대출금 잔액은 총 1769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3분기 말의 1530조 7000억원에 비해 239조원(15.6%)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잔액 기준 대출금 잔액 증가폭은 지난 2분기 말 234조 6000억원을 기록, 역대 첫 번째를 기록한 바 있다. 3분기는 2분기 대비 액수는 더 컸지만, 증가폭만 놓고 보면 2분기 말의 15.9%에 비해 두 배만 됐다.
다만 3분기만 놓고 보면 2분기 말에 비해 56조 6000억원이 증가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분기 때 68조 4000억, 1

분기 63조 9000억원으로 증가하던 것에 비해 다소 줄었다는 점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10조 6000억원, 서비스업이 38조 8000억원을 기록했다. 용도별로는 운전자금이 36조 6000억원, 사설자금이 20조원 규모다. 업권별로는 예금은행이 32조 4000억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이 24조 2000억원 늘었다.
이에 박찬형 한국은행 경제통계국 금융통계팀장은 “최근 산업대출 잔액 증가 흐름이 가팔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분기 증가액이 전 분기 대비

조금 축소된 부분은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태도가 강화된 점과 그간의 대출금 증가에 따른 거저효과가 반영됐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액은 역대 최대로 현재 산업대출의 높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박 팀장에 따르면, 이는 3분기 환율 상승폭이 컸던 영향이 반영된 결과로 제조업의 경우, 해외 원자료를 조달하는 만큼 원자재 가격 흐름과 함께 환율의 영향을 상당히 받기 때문이다.
박준호 기자 pjk@sportbiz.co.kr

10대 재벌기업 내부거래액 156조 총수2세 지분을 높일수록 비중↑

공정위 76개사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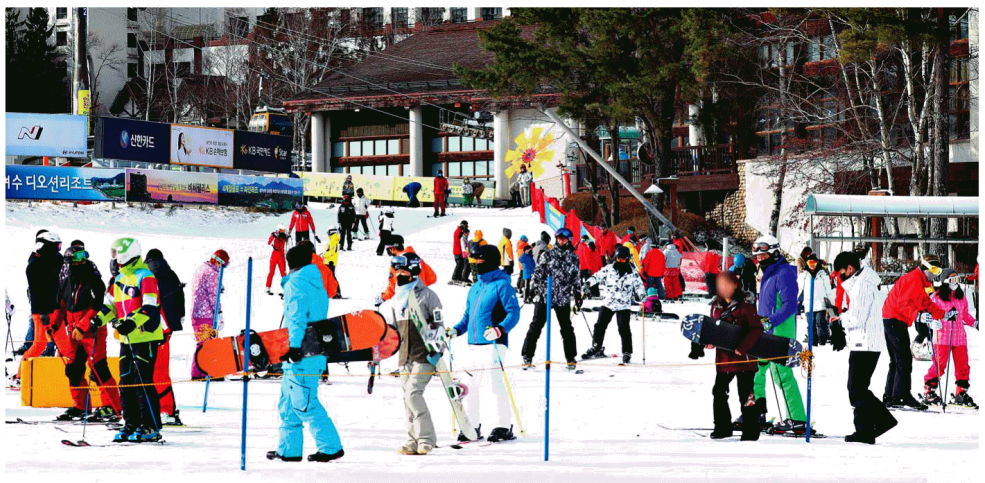
지난해 삼성, 현대자동차, SK 등 10대 재벌기업의 내부 거래액이 15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경우 계열사 간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아 혁신 동력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지난 5월 지정된 76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316개 계열사이며 지난 한해의 내부 거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특히 올해는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내부거래 현황과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새롭게 분석 공개했다.

현대차, SK, 삼성 등 재벌기업 내부거래액 218조원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76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1.6%로 내부거래 금액은 218조원에 나타났다.
이 중 현대자동차(45조2000억원) △SK(35조9000억원) △삼성(29조6000억원) △LG(15조2000억원) △현대중공업(10조원) △롯데(7조3000억원) △CI(3조5000억원) △한화(3조3000억원) △GS(3조원) △신세계(3조) 등 상위 10대 재벌기업의 경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거래액도 또한 증가했다. 이들의 내부 거래액은 156조원에 달했다.
다만 내부거래 비중은 2019년 14.1%에서 지난해 12.9%로 2년 연속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총수2세 지분을 높일수록 내부거래 비중↑
총수1위 혹은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다는 점도 확인된다. 지난해 총수 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9.3%며, 30% 이상인 경우 20.5%, 50% 이상은 21.1%까지 증가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100%인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이 29.3%로 나타났다.
다만 공정위는 총수2세의 지분율 20% 이상인 계열사의 내부 거래 비중이 1년 전과 비교해 3.4%p 감소한 점을 두고 “총수2세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통해 승계자금 마련 목적의 이익 편취가 이뤄질 소지가 높은 만큼 이러한 변화는 의미 있는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규제대상 회사 664곳의 내부거래 금액은 30조8000억원이며 내부거래 비중은 9.7%로 집계됐다. 특히 상위 10대 집단에 소속된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0.7%로 10대 미만 집단의 6.1%의 배를 넘어섰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규제대상 회사간 91% 수익계약
쿠팡·농협·한라 등 물류 100%
“규제대상 회사 간 거래 중 91.1%가 수익계약에 의해 이뤄지고 있으며 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통한 감시가 이뤄지기 어려운 비상장사에서의 내부거래가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민 과장은 “단순히 내부거래 수준이 높다는 사실만으로 부당 내부거래의 소지가 높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면서 “해당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 내부거래 발생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의 필요성은 상당히 높다”고 설명했다.
“물류·IT 내부거래 의존도 높아...성장 기회 제약”
공정위는 올해 처음 물류·IT 서비스 분야의 매출·매입 현황을 공개하고 매출과 매입 모두 내부거래 의존도가 상당히 높은 시장 구조가 형성돼 있다고 분석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물류 매출 현황을 공시한 31개 기업집단의 물류 내부 매출액은 12조3000억원으로 내부 매출 비중은 49.6%로 나타났다. 물류 내부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스쿠르(100%) 스농협(100%) 스타라(100%) △하이트론(99.6%) △농심(96.1%) 순이다. 내부매입 비중은 △한라(100%) △삼성(93.8%) △동국제강(83.7%) △현대자동차(79.3%) 순으로 확인됐다.
IT 서비스 내부매출 비중이 100%인 기업집단은 △현대해상 △농심 △동원 △오케이금융그룹 △쿠루팡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물류와 IT 서비스 분야의 매출·매입 내부거래 의존도가 높음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민 과장은 “물류·IT 서비스 매출회사는 매출을 계열사 외 의존함에 따라 자체 영업 역량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매입회사의 경우 계열 물류·IT 서비스 회사로부터 매입에 의존함에 따라 독립 물류·IT 서비스 회사의 성장 기회가 제약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ddnp@sportbiz.co.kr



하얀겨울 즐기자... 스키장 북적 북적
영서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한라봉가 발효 중인 4일 오전 강원 평창군 용평리조트 스키장에서 스노보더들이 겨울을 즐기고 있다. 연합뉴스

“강추위 기다렸다”... 패션업계 한파특보에 방긋

빈폴레이디스 등 매출 상승
기획전 등 분위기 반전 노력

계감 온도가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는 강추위가 시작되자 패션업계가 반색하고 있다.
최근 겨울에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패션업계 FW 장사는 한동안 위축된 모습이었기 때문이다. 패션업체들은 이번 극강한파를 계기로 패딩 수요가 많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 패션부문 빈폴레이디스의 지난달 1일부터 27일까지 22 겨울-겨울(FW) 겨울 니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5% 신장했다.
LF 마스 역시 이번 겨울 주력으로 나선 세운 펠팅 패딩 및 경량 패딩이 11월 한달간 전년 대비 100% 더 팔렸다.사파리와 불루투스, 베스트, 트랜지 코트 등 4가지 라인업 펠팅 제품으로 선보인 의류의 인기를 높였고, 몸의 패턴에 맞게 착용감을

을 높였다. 현재 3차까지 재생산 주문하고 있는 인기 제품군이다.
다스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따라 겨울 의류 소비가 증가하고, 예년보다 이른 추위에 겨울을 아우터들 찾는 소비자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유통-패션업계는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오면서 분위기 반전을 꾀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을겨울 시즌은 패션업계의 성수기로 가볍고 얇은 봄여름의 제품보다 FW제품이 훨씬 객단가가 높기 때문이다. 통상 패션업계의 연매출의 70% 이상이 4분기에 몰려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로 무신사-W컨셉을 비롯한 패션이커머스 플랫폼들은 ‘아우터 위클리 특가’, ‘에프터 블랙 프라이데이’ 등 기획전을 진

행하기 시작했다. 예년보다 따뜻한 날씨에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 내내 겨울 아우터 판매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해 기획전 규모를 키운 것이다. 백화점업계도 12월 초에 정기 겨울 세일과 별개로 겨울 아우터 대전을 추가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겨울 한파가 장기가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고물가와 고금리-고환율 “3고(高)” 현상에 따른 경기침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있어 성수기 효과가 그리 오래 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패션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위가 오면서 겨울 의류 매출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장기적으로는 교환율 영향 등 내년 얼पा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라 올 겨울이 중요한 시즌”이라고 설명했다.
고예민 기자 y411@sportbiz.co.kr



연합뉴스 제공